

코로나19 팬데믹과 북한문학*

김성수**

- I. 머리말 : 팬데믹 시대 북한문학과 코로나19(‘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II. 코로나19 팬데믹 재현의 문학사적 전통과 매체론적 의미
- III. 코로나19 팬데믹과 문학의 응전 : ‘대동란, 고요, 정성’이라는 키워드
- IV. 마무리 : ‘방역대전’ 승리 신화와 은폐된 진실

국문요약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23) 북한 문예지 콘텐츠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북한문학이 코로나 19(‘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를 어떻게 그렸는지 살펴본다. 최근 3년간의 북한문학을 보면, 북한 주민들도 코로나19 팬데믹의 재난을 피하지 못했으며 그들의 일상생활도 도시 봉쇄식 방역강화로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재현한 문학작품을 개관해보면 전염병의 참상은 구체적 감각적 이미지로 묘사된 것이 대부분인 반면 방역 승리 찬가는 추상적 문구와 관념적 문장으로 획일화된 것이 많았다. 특히 ‘방역대전의 성과작’으로 칭송받은 장시 「고요한 거리에서」(2022.6) 등의 문학작품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 도시 봉쇄, 주민 이동 금지 정책으로 인한 일상 파괴를 ‘대동란, 고요’로 형상화하였다. 그 극복과정을 ‘최대비상방역체계’를 통한 ‘방역대전’으로 형상하고 지도자의 헌신과 의료진의 ‘정성’이란 상징어로 3개월(2022.5~8) 만에 방역에 성공했음을 자축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방역대전’의 문학적 재현양상을 미시 분석하면, 당 정책의 즉시적 반영과 기

동력 있는 재현이 가능한 시가 장르에선 코로나의 일상 훼손과 방역 성공 찬가가 주를 이룬다. Covid19 팬데믹의 일상 훼손을 전면 봉쇄된 거리를 현상한 ‘고요’라는 단어가, 방역대전에서 승리한 의료진의 헌신은 ‘정성’이란 의료진 마크 문구가 상징한다. 제8차 당대회(2021.1) 전후의 문예정책은 이 시기 문학예술의 최우선 과제를 인민경제 5개년 계획의 선전과 Covid19 팬데믹에 대응하는 ‘방역대전’ 승리의 찬양에 두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참상을 비판적 산문정신과 내재적 통찰로 묘사한 소설 등 리얼한 재현 텍스트를 찾기 어렵다. 「드리노라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2022.10) 등 시가 텍스트 대부분은 자력갱생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다는 체제 선전과 지도자 찬가에 머물러 별다른 감동을 주지 못한다.

주제어: 북한문학, 코로나19(Covid19,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팬데믹, 김정은 시대, 방역대전, 「고요한 거리에서」, 「드리노라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 이 글은 다음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북한문학의 응전.” 『김정은 시대, 북한의 문화정치』(2023 북한연구학회 춘계 학술회의 발표문집, 2023.4.21.)

** 성균관대학교 교수

I. 머리말 : 팬데믹 시대 북한문학과 코로나19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이 글에서는 코로나19¹ 팬데믹 시대(2020~23) 북한문학이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어떻게 그렸는지 다각도로 보고한다. 이 시기 북한 문예지 『조선문학』, 『문학신문』 콘텐츠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문학적 재현 양상을 살펴본다.

2020년 이후 2023년 현재까지 『로동신문』(pdf)이나 조선중앙통신 등의 대외용 미디어콘텐츠에는 북한의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현황과 예방부터 방역까지의 추이가 공개되었다. 그러나 북한 문학작품에 재현된 코로나19의 감염 현실과 방역 정황은 거의 찾기 어려웠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상에 끼친 영향과 방역 과정을 재현한 문예작품을 논의한 연구도 없었다. 필자는 3년 만에 해외 경로를 통해 디지털 자료로 유통되는 최신 문예지 『조선문학』 『문학신문』 pdf를 어렵게 구할 수 있었다. 이에 디지털 콘텐츠로 유통되는 문예지 텍스트의 분석을 통해 김정은 시대 3기 전후(2019-2023) 문학 동향 및 코로나19의 문학적 재현양상을 보고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지만 다행히도 필자와 자료를 공유한 이지순에 의해 온라인 정책보고서가 먼저 나와 궁금증을 다소 해결할 수 있었다. 그에 따르면 2020년~2022년의 북한문학에서 코로나19 방역정책과 담론, 팬데믹을 횡단하는 북한 주민들의 경험을 징후적으로 찾을 수 있다. 문학장에서 펼쳐진 방역 선전과 문학 텍스트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그는 북한문학의 팬데믹 재현 양상을 셋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된 2020년에는 코로나19를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문학장에서도 비상방역 선전을 전면화했다. 둘째, 2021

¹ ‘코로나19’는 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발견된 변종 바이러스 SARS-CoV-2에 의해 발병한 급성 호흡기 전염병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20년 2월 11일 공식명을 ‘Covid-19’로 정한 후 신종 플루처럼 세계적 범유행 전염병(팬데믹)으로 규정하여 국제적 협력 하에 관리하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줄여서 ‘코로나19’라 하고 북한은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문맥에 따라선 ‘악성전염병’으로 부른다. ‘코로나19’는 논문 지문에 쓰고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원문 인용 때 사용한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필자가 문맥에 따라 혼용한 팬데믹이 곧바로 코로나19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 사례는 1968년 홍콩독감과 2009년 신종플루, 2020년 코로나19 등이 있다. 보도자료에 따라선 스페인독감, 사스, 메르스 등도 팬데믹 범주에 넣기도 한다.

년에는 6·25 전쟁기의 ‘세균전’을 호명한 수령형상문학을 통해 Covid 제로의 북한을 ‘깨끗한 땅’으로 환유하면서 김정은의 방역정책의 정당성을 문학적, 이념적으로 확보하고자 했다. 셋째, 2022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겪은 봉쇄의 경험은 ‘고요’로 표현되었으며, 부족한 물자와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인민들의 ‘덕과 정’으로 이겨내는 서사는 김정은의 재난 리더십으로 표상되었다.²

기존 논의에서 보듯이 북한 문학은 코로나19 관련 정책과 담론을 내면화하면서 주민들의 심리적 동요를 수습하고 위기를 통과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방역대전 승리 서사’를 좀더 깊이 따져보면 팬데믹 경험을 재현한 문학텍스트에 담긴 북한 주민의 불안한 감정과 위태로운 현실인식이라는 은폐된 진실도 독해해 낼 수 있다.

앞으로 논의를 심화하려면 문예 텍스트 예시를 통한 일상 변화를 포착할 때 미시적 분석과 함께 거시 담론의 추이도 아울러 감안했으면 하는 점이다. 물론 『로동신문』 매체 분석을 통한 당 정책 평가가 문예 텍스트 해석의 필수 선행요소처럼 전제된다면 그것은 비속사회학적 정치주의적 편향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고 『조선문학』, 『문학신문』 등 문예지 텍스트의 부분적 예시와 분석으로 북한사회 변화를 별다른 매개항 없이 단순 해석, 과잉 평가하는 것도 문학주의적 편향이다. 당 정책 분석 같은 거시담론을 앞세우지 않되 간과, 외면하지 않고 정세 분석 차원에서 각주 처리라도 해야 한다. 텍스트와 해석 사이에도 텍스트가 수록된 매체와 미학, 전형 같은 매개항을 아울러 논의를 퍼면 더욱 정교한 연구가 될 것이다. 최신 자료 확보 후 텍스트 분석과 함께 당 정책, 문예노선, 이념, 미학, 전통, 전형 논의를 해석-평가와 병행해야 온전한 문예 연구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첫째, 미디어 분석법으로 문예지(2020~23) 자료의 기사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둘째, 문헌 고찰과 역사주의적 분석법으로 정세와 문예지 특집기획, 캠페인란의 호응관계 분석, 셋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문학적 재현을 둘러싼 당 정책 선전이라는 표면적 기능과 ‘사회주의 현실’ 반영이라는 은폐된 진실 추구라는 문학 고유의 이면적 기능의 길항관계 순으로 논의를 펴겠다.

² 이지순, “북한 문학의 팬데믹 재현: 재난 리더십과 코로나19 경험,”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CO 23-12, 2023.3.28.) <<https://kinu.or.kr/www/jsp/prg/api/dlv.jsp?menuIdx=351&category=53&thisPage=1&searchField=&searchText=&biblioId=1551102>>.

II. 코로나19 팬데믹 재현의 문학사적 전통과 매체론적 의미

필자는 김정은 시대 북한문학 전반에 대한 기왕의 연구와 최근 코로나 팬데믹 문학 논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시기(2020~23) 북한문학이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을 어떻게 대했는지 좀더 입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입체적 분석이란 쟁점을 문학사적, 매체론적으로 확산, 심화시켜 아우르겠다는 뜻이다. 기실 코로나19에 대한 북한문학의 응전방식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우회적 방편으로 과거 전염병 유행에 북한문학이 어떻게 응전했는지 방역 재현의 문학적 전통을 보고한 바 있다.³

1. 방역 재현의 문학사적 전통

첫째, 김정은 시대 3기(2020-23) 문학의 코로나19 재현은 어떤 문학사적 전통과 관련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북한문학사에서 역대 전염병과 관련된 방역 재현의 전통을 보면 전염병으로 인한 각종 참상과 재난현장, 그리고 그를 극복하려는 방역 형상을 적잖이 찾을 수 있다. 특히 인상적인 작품은 코로나19를 상기시키는 전염병과 관련된 전시 재난 극복 서사로서 세균전 폭로와 전시 방역투쟁을 중첩해서 그려낸 단편소설 「깨끗한 땅」(2021.4)이다. 이 작품은 마리라는 ‘한 벨지끄 여성법률가의 수기’란 부제를 단 6.25전쟁기 세균전 폭로 외교전을 줄거리로 삼았다.⁴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신음하는데 유독 확진자가 전혀 없었던 2021년 북한 문예지에 6.25전쟁기 세균전을 폭로하는 단편이 실려 주목을 요한다.

코로나 방역이 한창이던 2021년에 왜 70년 전인 6.25전쟁 당시의 세균전 폭로전을 그린 「깨끗한 땅」이 나왔을까? 그것도 외국 법률가 여성의 시선을 가탁해서 미군의 만행과 전염병의 참상, 전시방역 성공담을 그렸을까?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엄혹한 현실에서 70년도 더 지난 전쟁기의 세균전을 다시

³ 필자는 과거 북한문학이 어떻게 세계적 유행 전염병(팬데믹)에 대처했는지 분석한 글을 통해 간접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전망한 바 있다. “재난 극복의 전통과 북한문학의 응전,” 『재난의 상상력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북한 문학예술』 (남북문학예술연구회 2021년 가을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21.10.30.). 당시 발표문에 추후 확보한 자료를 더해 논거를 보완한 논문, “북한문학의 방역 재현 전통과 팬데믹,” 『국제한인문학연구』, 통권35호 (2023) 참조.

⁴ 김정학, 「깨끗한 땅 - 한 벨지끄 여성법률가의 수기」(단편소설), 『조선문학』, 2021.4, p. 11.

폭로하고 지도자의 헌신으로 전투방역에 성공했다는 무용담의 소환을 통해 정신 승리를 꾀한 것이 아닐까. 2021년 현금의 전염병 원인도 외부 세계에 있고 국경 폐쇄와 도시 봉쇄를 통한 ‘악성비루스 감염’ 방역에 성공해서 ‘확진자 0명의 신화’를 유지했다고 대내외에 과시하고 싶었을 것으로 풀이된다.⁵

이러한 숨겨진 의도는 아직 코로나19 참화를 겪지 않은 5년 전에 나온 변영진 단편소설 「사랑은 뜨겁다」(2016)에서 더욱 노골적인 체제 우위성 선전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 작품은 김정은 시대를 대표하는 방역 권위자의 전쟁기 회상물이다. 평양의 미래과학자거리 초고층살림집에 사는 김일성종합대학교 평양대의 교수인 리지하 박사는 ‘비루스성 확진 분야의 권위 있는 학자’로 ‘새형의 비루스성간염 예방약’을 연구 완성’하였다.

“조류독감, 에이즈, 각종 비루스성 전염질병으로 생명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피부색이 각이한 사람들의 모습”⁶을 보고 자신의 연구성과물로 그들을 구하겠다는 신념을 가진 의인이다. 그는 조류독감, 에이즈, 비루스성 전염질병으로 고통받는 유색인들이 바로 6.26전쟁 때 세균전을 펼쳤던 미군의 후예이자 타자로 인식한다. 그가 보기에 구미, 남조선 같은 서방 세계는 북한처럼 국가와 주민이 하나된 사랑으로 긴밀히 결속되지 않았기에 대유행 전염병에 취약하다. 인민이 수령을 아버지로 모셔서 가족처럼 단합된 북한체제는 “뜨거운 사랑을 뿜어주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보답하는”, “소중하고 고마운 사회”⁷로 자부한다.

소설에서 흥미로운 스토리는 ‘리지하의 수기, 아버지의 수기 중에서’란 내부 액자에서 보듯이, 전쟁 중 세균전을 막을 치료약을 수송하다가 전사한 어머니 문수련의 사연이다. 2016년의 세계적인 비루스감염병 권위자이자 의대 교수인 주인공이 실은 6.25전쟁 때 세균전을 막아낸 여군의(女軍醫)라는 서사가 바로 김정은 시대 북한문학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 소설에는 지도자와 주민이 가족처럼 유대감을 가진 주체체제는 지상낙원이고 돈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종차별이 심한 서방 세계는 전염병이 대유행할 수밖에 없는 사회라는 이분법이 깔려 있다. 회상기 액자에 전제된 이분법은 전쟁 때의 피아 구별법으로 적의 탄저병, 콜레라 세균전에 맞서는 치료약 ‘마팔산’을 대비시키고, 현재 시점에서 조류독감, 에이즈 등이 창궐한 서방 세계와 ‘새형의 비루스성간염 예방약’을 충분히 갖춘 북한사회

⁵ 김성수, “북한문학의 방역 재현 전통과 팬데믹,” 참조.

⁶ 변영진, 「사랑은 뜨겁다」(단편소설), 『조선문학』, 2016.5, p. 66.

⁷ 위의 글, p. 77.

를 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까지 북한의 역대 전염병과 관련된 방역 재현 문학의 사적 전통을 보면 1950년대 세균전에 맞선 전투방역, 1960년대 사회주의적 보건 위생체계를 통한 예방의학, 197,80년대 고려 동의학 전통과 현대 신의학을 결합시킨 주체의 료체계 등을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으로 국가 구성원이 가족처럼 하나된 특유의 단합력 등으로 언제나 ‘최선의 보건 위생 의료체계’를 구가한 것처럼 선전된 것이 방역 문학의 변치 않는 전통이었다. 그러나 외부 세계와 타자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없는 주체체제의 자기만족감이 김정은 시대에도 여전히 견고한 성채를 채우고 있다는 문학적 증거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자부심 넘친 체제 우월감의 성채는 코로나19 방역 문학에 와서 미묘하게 균열된다.⁸

2. 문예지의 비문학 방역 콘텐츠

북한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통제 국가이므로 팬데믹이 발생해도 국경을 폐쇄하고 도시를 봉쇄하고 주민 간 이동을 전면 통제할 수 있어서인지, 2022년 5월⁹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도 없다고 공식화하였다. 다만 코로나 청정국이라는 공식 주장과 달리 코로나19가 북한 주민들의 일상에 엄청난 위협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간접 정보는 문예지에서도 적잖이 찾을 수 있다. 가령 전염병의 참상과 극복 과정을 직접 그린 문학작품은 아니지만 전염병 방역 관련 캠페인성 기사가 문예지로선 이례적으로 3년간 지속 게재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 시대 3년간의 『조선문학』 『문학신문』 기사를 찾아보니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에 대한 캠페인성 기사를 적잖이 찾아 볼 수 있었다. 가령 문예지에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을 철저히 막자’란 구호가 처음 나온 『문학신문』 2020년 2월 8일자 4면 기사부터 기획물이 동일 위치에 연중 계속 나왔다.¹⁰ ‘신형코로

⁸ 김성수, “북한문학의 방역 재현 전통과 팬데믹” 참조.

⁹ 제8차 당대회(2021.1.8)와 조선혁명군 창군 90주년 기념 행사(2022.4.25.) 당시도 코로나19 발생자가 없다고 공표하였다.

¹⁰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을 철저히 막자,” 『문학신문』, 2020.2.8.; “신종코로나비루스방역과 관련한 대중상식,” 『문학신문』, 2020.3.14.;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을 철저히 막자_사람들이 지켜야 할 위생상식,” 『문학신문』, 2020.3.21.;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을 철저히 막자_잘못된 인식 몇 가지,” 『문학신문』, 2020.4.25.;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을 예방하려면,” 『문학신문』, 2020.5.9.; “새로 개발된 그라펜마스크,” 『문학신문』, 2020.5.23.; “전염병 예방과 식사 환경,” 『문학신문』, 2020.6.20.; “오존이 신형코로나비루스를 불활성화시킨다는 것을 확인,” 『문학신문』, 2020.7.4.;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타민K.”

나비루스감염증을 철저히 막자'란 구호가 처음 나온 2020년 2월 이후 방역 관련 대중상식이라 하여 보건 위생 식사 환경 개선, 금연을 통한 예방법부터 코로나 치료제로 국제기구에서 공인되지도 않은 그라펜스크, 오존, 비타민, 페노피브라드 등 치료법까지 “어느 나라 의료진에 따르면~” 등의 전언(傳言)기사로 소개되어 있다.

『조선문학』 또한 2020년 9월호부터 최근까지 ‘국가의 안정, 인민의 안녕’이란 제목의 고정란, 박스 단신 기사가 연속 게재되고 있다.¹¹ 코로나 발병자가 없었던 2020-21년에는 비상방역사업의 주체인 인민대중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서로 방조하고 서로 통제하는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발휘하자고 한다. 악성전염병이 퍼지지 않게 바늘 끝만한 틈도 없게 강철 같은 방역규율을 강화하되 방역 승리를 확신하는 사상교양을 드높이자고 한다. 이러한 캠페인의 이면을 따져보면, 비상방역사업의 주체가 당-국가, 의료진이 아니라 인민대중이며 방역사업의 실행방식이 방역마스크, 진단키트와 적정 치료제 제공이 아니라 방역 규율의 강화와 승리를 확신하는 정신무장으로 난관을 헤쳐가려는 안간힘이 감지된다.

그러나 유례없는 악성전염병인 코로나19가 인민의 자발적 예방과 사상의식을 높인다고 저절로 방역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2021년 7월엔 악성전염병사태의 장기화에 철저히 대처하자면서 방역 승리가 되지 않았음을 간접 시인하고, 방역이 사람 목숨이 달린 사활적인 문제인 만큼 더욱 강한 방역의식, 규율 준수, 생활습관 개선을 독려한다. 2022년 3월에는 방역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바로 ‘방역전선’을 공고화하는 것이라고 전쟁에 준하는 고도의 긴장상태를 요구하기에 이른다. 이제

『문학신문』, 2020.7.18.;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과 여름철의 열파,” 『문학신문』, 2020.7.25.;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을 증대시키는 흡연,” 『문학신문』, 2020.8.15.;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페노피브라드,” 『문학신문』, 2020.8.22.

¹¹ “사고와 행동의 일치성,”(고정란-‘국가의 안전, 인민의 안녕’) 『조선문학』, 2020.9, p. 23; “서로 방조, 서로 통제,” 『조선문학』, 2020.10, p. 60; “우리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남김 없이 발양시키자!”(선전화), 『조선문학』, 2020.10, 표지3면; “각성분발,” 『조선문학』, 2020.12, p. 35; “누구나 주인답게,” 『조선문학』, 2021.1, p. 6; “승리의 담보,” 『조선문학』, 2021.2, p. 29; “비상방역사업의 주체,” 『조선문학』, 2021.3, p. 27; “사상교양의 도수를 강도 높이,” 『조선문학』, 2021.4, p. 28; “책임성과 역할을 백방으로,” 『조선문학』, 2021.5, p. 6; “강철 같은 방역 규율,” 『조선문학』, 2021.6, p. 47;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 관철_바늘 끝만한 틈도 없게,” 『조선문학』, 2021.7, p. 31; “악성전염병사태의 장기화에 철저히 대처하자,” 『조선문학』, 2021.9, p. 22;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 결정 관철_방역의식을 높여주는데 선차적인 힘을,” 『조선문학』, 2021.11, p. 30; “방역 강화는 가장 중핵적인 과업,” 『조선문학』, 2021.12, p. 30; “강한 규율 준수기풍을 확립하자,” 『조선문학』, 2022.1, p. 33;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 결정 관철_사활적인 요구, 생활습관,” 『조선문학』, 2022.2, p. 19; “규정 준수는 곧 방역전선의 공고화,” 『조선문학』, 2022.3, p. 36; “고도의 긴장 상태,” 『조선문학』, 2022.4, p. 46.

인민의 자발적 예방과 방역 규율 준수, 사상 교양 정도로 수십만 명의 ‘유열자’(코로나19 의심 환자인 발열자) 확산을 막을 수도 숨길 수도 없게 되었다. 북한 당국은 2022년 5월 12일 이전까지 코로나19가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2022.5.12.)에서 발병 사실을 공식화¹²한 이후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유열자(발열자)’가 나오자, ‘최대비상방역체계’를 통해 봉쇄 조치를 최강도로 유지하였다.¹³

2022년 5월의 코로나19 발병 공식화 이후 『조선문학』지의 ‘국가의 안정, 인민의 안녕’란 캠페인의 내용도 기조가 달라진다. 이전까지 코로나 예방에 주력하고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자고 정신무장을 강조했던 것과 결이 달라졌다. 코로나 발병을 기정사실화하고 ‘방역대전’의 구체적 지침을 선전한다. 가령 한 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비상방역전을 강도 높히 진행하자면서(2022.5) 방역대전을 선전 독려한다. 방역사업에서 주도권은 생명 보전이라면서 주민 이동권 등 개개인의 일상을 희생하더라도 전면 봉쇄책을 통한 최대 방역체계를 가장 중대한 최우선 사업으로 틀어쥐고, 전 인민적인 방역의식과 각성을 견지하는 것이 ‘국가 방역 능력 건설사상의 본질’이라 홍보한다. 이는 인민경제 5개년계획의 관철을 위한 금속공업, 화학공업의 강화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구체적 지침이듯, 방역대전 승리가 제3, 4, 5차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실행 지침으로 규정된다.¹⁴

이상에서 보듯이, 『문학신문』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철저히 막자’는 기획 제목 하에, 『조선문학』은 ‘국가의 안정, 인민의 안녕’이란 고정란을 통해 코로나 19 팬데믹의 문학적 응전의 한 양상을 잘 보여주었다. 즉, 악성전염병의 예방과 방역, 치료까지 전 방위적인 대처법이 문예지의 비문학 캠페인으로 3년 가까이 계속 실리는 이례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다. 그 구호의 시기별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하면 코로나 청정국이라는 대내외 공식 입장과 달리, 전대미문의 악성 전염병에

¹² 제8차 당대회(2021.1.8)와 조선혁명군 창군 90주년 기념 행사(2022.4.25.) 당시도 코로나19 발생자가 없다고 공표하였지만 2022년 5월 12일 당 정치국회의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발생을 공식화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 진행,” 『로동신문』, 2022.5.12., p. 1.

¹³ 위와 같은 곳: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회 진행,” 『로동신문』, 2022.5.14., p. 1.

¹⁴ “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비상방역전을 강도 높히,” 『조선문학』, 2022.5, p. 49; “최중대사로 틀어쥐고,” 『조선문학』, 2022.6, p. 30; “방역사업에서 주도권은 생명,” 『조선문학』, 2022.7, p. 50; “국가방역능력건설사상의 본질,” 『조선문학』, 2022.8, p. 10;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결정 관철_전인민적인 방역의식과 각성을 견지하자,” 『조선문학』, 2022.10, p. 60.

대처하는 민간요법의 지속적 정보 제공 등을 무한반복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저간의 사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선문학』 『문학신문』 『청년문학』 등이 『로동신문』 『근로자』 같은 정책 선전지나 『천리마』 같은 대중교양지가 아닌 문예지인데도, 3년 연속해서 전염병 방역 캠페인을 전례 없이 게재했을까? 북한 문예지 역사에서 ‘국가의 안정, 인민의 안녕’이란 명분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철저히 막자’란 식의 비문학 캠페인 기사가 3년간 지속적으로 실린 전례는 없다. 『로동신문』에 2020년부터 팬데믹 관련 보도와 방역 캠페인이 계속 실린 것과 거의 동일한 시기¹⁵라서, 시, 소설, 수필, 정론 등이 아닌 비문학 콘텐츠를 굳이 부족한 문예지 지면까지 할애해서 반복 연재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 터이다. 70년치 문예지를 전수 조사해보니 문예지에 비문학 방역담론, 콘텐츠가 1년 넘게 게재된 전례는 1958년의 전염병 방역 때뿐이었다.¹⁶

이런 기사가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 『근로자』, 대중교양지인 『천리마』 등에 실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굳이 문예지면에까지 실리는 이유는 당 정책 선전매체로서의 문예지 정체성이 재강화되었다고 풀이할 수 있다. 창작의 전문성과 어느 정도의 집필기간이 필요한 시, 소설, 수필, 비평 같은 문학작품과 달리 캠페인성 기사는 당 정책 발표와 동시에 기동력 있게 독자인 인민대중에게 전달되는 선전수단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캠페인 내용의 수준은 코로나19를 전담 방역할 마스크와 적절한 치료제가 없어 민간요법 수준의 예방과 위생의식 강화만 반복할 뿐이다. 가령 2020년에는 마스크를 깨끗이 세탁해서 사용하라고 잘못 알리던 것이 2022년에 와서야 재사용이 불가하다고 바로잡거나, 초기엔 일반 생리식염수로 콧속을 소독하라더니 나중에는 삼투압이 높은 식염수인 ‘코함수’로 콧속을 소독

¹⁵ 『로동신문』지의 2020년 3월부터 2022년 말까지 6면 고정란인 ‘확대되고 있는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 피해’ 상자기사에서 전 세계 일일 발병 사망자 총계를 지속적 보도하였다. 2022년 5월에는 6면에 어른용, 어린이용, 임산모용 등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 치료안내지도서’가 총 6회 연재되었다. 문예지인 『문학신문』지의 ‘대중상식, 위생상식,’ 『조선문학』지의 ‘국가의 안전, 인민의 안녕,’ 같은 비문학 방역 캠페인 기사가 고정란으로 연재되었다.

¹⁶ 가령 1958~60년치 『조선문학』 『조선예술』 『조선음악』 잡지의 표지, 내표지, 목차면 상단, 화보, 광고란에 전염병 방역과 관련된 표어, 구호, 선전화, 선전가, 약보 등이 게재되었다. 문예 미디어에 전례 없는 전염병 방역 관련 캠페인 콘텐츠가 집중 게재되었다. 선동선전이 주기능인 사회주의 문예지에 정치구호와 정론, 개인승배물이 실리는 전례는 많다. 다만 위생, 방역을 위해 쥐를 잡자는 식으로 구체적인 세부 주제를 정해 비문학 콘텐츠를 일시적으로 집중 홍보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문학지의 경우 『조선문학』지에는 더 이상 이런 방식의 보건 위생 방역 선전물이 집중적으로 연속해서 실리는 경우를 찾을 수 없다. 그 함의는 “북한문학의 방역 재현 전통과 팬데믹” 참조.

하라고 한다. 음식이나 접촉물을 56℃ 조건에서 30분동안 열처리하여 쓰거나 알코올, 염소계소독제, 요드계소독제, 과산화초산소독제 등을 이용하라 안내하는데, 이는 코로나 전문 치료제가 없는 경우 민간 차원의 상식적인 예방책일 뿐이다.¹⁷

Ⅲ. 코로나19 팬데믹과 문학의 응전 : ‘대동란, 고요, 정성’이라는 키워드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조선문학』, 『문학신문』, 『청년문학』 수록 문학작품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문학적 재현 양상을 정리, 분석해보자. 이 과정을 시기순으로 정리하면 첫째, 2020년 코로나 초기 단계, 둘째, 2021년 코로나 은폐 단계, 셋째, 2022년 5월 12일 이후 코로나 발병 공식화와 ‘방역대전’ 승리(2022.8.10.) 단계로 나뉘볼 수 있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실제 문학텍스트의 분석과 의미 부여, 평가에서는 당문학적 선전기능만 소개하지 않고 은폐된 진실 추구라는 문학 고유의 이면적 기능까지 감안할 생각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문학적 재현을 통해 지도자 찬양과 방역대전 승리 찬가라는 당 정책을 선전하는 것이 북한문학의 표면적 공식기능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문학의 본질이 인간과 세상의 총체적 반영이기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다 보면 은연중에 은폐된 진실까지 드러낼 수 있다는 이면적 함의까지 찾아보려 한다. 둘의 길항관계를 따지다 보면 반복 선입견에 경도된 편향된 분석이나 과잉해석의 위험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진실의 파편을 모을 생각이다.

1. 코로나19 초기 단계의 북한문학

첫째, 2020년 코로나19 초기 단계의 북한문학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을 크게 보이지 않았다. 북한 내 발병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나라의 대재앙을 강 건너 불 보듯 여기면서 자신들은 단합된 봉쇄정책으로 악성전염병에서 안전한 것처럼 일상을 그렸다. 오히려 사회주의적 보건 위생과 주체의학체계의 우수성을 반복 선전

¹⁷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코함수,” 『청년문학』, 2022.8, p. 58; “소독 방법 몇 가지,” 『청년문학』, 2022.8, p. 70.

하였다. 당시 나온 시 중에서 「우리 당의 붉은 보건전사」(2020.2), 「보건전사 그 영예 빛내여가리」(2020.3)를 읽어보자.

잠 못 드는 밤이다 / 우리 원수님 불러주신 / 로동당의 붉은 보건전사 / 고귀한 그 이름을 외우고 또 외워보며 / 스스로 내 량심을 헤쳐보는 밤이다//
 때없이 아픔을 호소하며 찾아오는 사람들 / 그들이 정녕 누구이던가 / 병력서에 쓰여진 / 이름과 주소는 서로 달라도 / 부름은 하나 우리 원수님 사랑하시는 인민/ 사는 곳도 하나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품//
 (중략) ‘정성’이라는 붉은 글발을 / 늘 가슴에 달고 일한다 해도 / 인간애가 없으면 백약도 무효 / 이 가슴 사랑으로 불타지 않는다면 / 명약으로도 생명을 건질 수 없는 것//
 평범한 보건전사 나의 눈빛에서 / 그들은 사회주의 모습을 보고 / 피부에 와닿은 나의 손길에서 / 사람들은 고마운 제도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나니//
 내 아낌없이 바치리라 / 숨져가는 자식을 위해 / 피도 살도 다 바쳐 / 끝끝내 안아 일으키는 어머니처럼 / 인간 사랑의 아름다운 시대를 장식한 / 천리마시대 보건전사들처럼 / 나도 이 제도를 지켜선 초병! (후략)¹⁸

저 하늘의 별들도 하나둘 꺼지고 / 이밤은 끝없이 깊어가는데 / 환자를 위해 바쳐가는 / 보건전사 나의 이 열정//
 (중략) ‘정성’이란 두 글자가 빛나는 /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노라 / 내 심장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뜨거울 때 / 그것이 보건전사 / 내가 걷는 보답의 길임을//
 뜨거운 사랑과 정성 / 이것이 바로 명약이기에 / 사랑과 정성을 바쳐가는 이 마음에 받들려 / 얼마나 많은 환자들 / 재생의 기쁨 안고 병원문을 나섰던가 //
 (중략) 위대한 수령님들 마련해주신 /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 속에서 / 우리 인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려가도록 / 나의 진정 다 쏟으리라 //
 로동당의 붉은 보건전사로 / 한생을 빛나게 살 맹세 다지며... / 사랑의 불사약 / 정성이란 두글자를 뜨겁게 외워보며... //19

두 시는 의료진을 서정적 주체로 삼아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의료제도’를 인민에게 베푸는 ‘로동당의 붉은 보건전사’로서의 자부심을 노래한다. 그 시적 상징은 의료진의 팔뚝에 두르는 ‘정성’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진 붉은 완장으로 이미지화된 소명의식이다. 시에서 북한은 아픈 이가 있으면 언제 어디든 밤잠

¹⁸ 박현철, 「우리 당의 붉은 보건전사」(시), 『문학신문』, 2020.2.22., p. 3.

¹⁹ 한평광, 「보건전사 그 영예 빛내여가리」(시), 『문학신문』, 2020.3.14., p. 3.

을 설쳐가며 달려가 정성을 다해 치료해주는 사명감 넘친 보건 전사가 있는 사회주의 의료시스템이 잘 갖춰진 사회로 묘사된다. 질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약이나 의료장비, 기술 등 생산수단이 아니라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과 인간애로 무장한 ‘당의 붉은 전사’ 의료진이라고 하여, 사람이 제일이라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주체의학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다는 정신승리를 서정화한다.

다만 우주로켓을 쏘아올린 첨단 과학기술을 우대하는 최첨단 돌파 시대에 ‘숨겨가는 자식을 위해 피도 살도 다 바친 어머니, 친누이의 마음’ 같은 중세적 모성애와 ‘인간 사랑의 아름다운 시대를 장식한 / 천리마시대 보건전사’ 같은 토건시대 노동영웅담을 이상적 모델로 삼은 것은 그리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다. 약이 모자라고 최신 의학장비, 의료기술이 없어도 지도자에 대한 충성과 인민에 대한 사랑, ‘정성’이라는 붉은 완장으로 정신무장한 의료진만 있으면 된다는 주체의료의 심각성이 은폐되어 있다.

기실 코로나 발병 초기에는 문학의 사회적 기능이 그리 돋보이지 않았다. 당시 ‘코로나 청정국, 발병자 0명 통계’를 내세우면서도 『로동신문』 2020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6면에는 고정란인 ‘확대되고 있는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피해’ 상자기사가 상설화되었다. 전 세계 일일 발병 사망자 총계를 지속적으로 보도하였다. 발병을 공식화한 2022년 5월 중순부터는 6면에 어른용, 어린이용, 임산모용 등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치료 안내 지도서’를 총 6회 연재 고정란을 두기도 하였다.

2020년 북한문학은 코로나19시대의 이면의 진실조차 예들려 묘사하지 않았/ 못했다. 이지순의 주장처럼 비상방역전을 선전하는 방송원의 목소리가 일상을 장악했고 주민들은 세계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를 보면서 대재앙을 ‘대리’ 체험했다. 로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평양방송이 재난 보도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데도 문학은 세계의 디스토피아적 상황을 ‘직접’ 증언하지 않았다. 오히려 2020년의 북한문학은 자국의 조치가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심리적 동요와 불안을 단속하고 파국의 ‘상상력을 통제’했다.²⁰

2. 코로나19 전면 봉쇄기의 북한문학

둘째, 2021년 코로나로 인한 전면 봉쇄기. 일상생활의 심각한 훼손이 추정되지

²⁰ 이지순, 앞의 글. p. 3. 인용자가 문구를 수정했다.

만 문학적 형상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방역체계 등의 구호와 비문학 캠페인 기사의 일상적 정착 등 간접 증거로 추정컨대 당국의 공식 선전처럼 ‘코로나 청정국, 발병자 0명 통계’에는 의문이다.²¹ 2022년 5월 12일의 당 정치국회의에서 발병 사실이 공식화되자 그제서야 그간의 참혹한 현실이 뒤늦게 폭로되었다. 청정국에 ‘대동란’이 일어난 셈이다. 아니, 청정국이란 허구 속에 은폐되었던 ‘대동란’의 진실이 비로소 봇물 터지듯 드러났을 뿐이다.

가령 윤학명 수필 「9월의 밤」(2022.9)에서 보듯이, ‘악성비루스 류입이라는 대동란’이 일어나 세계를 휩쓰는 대유행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촛불마냥 꺼졌던가 말이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망자수를 기록하는 세계의 참혹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다고 생각하니 순간 앞이 캄캄했다²²는 식의 솔직한 고백이 많이 나왔다.

오혜심 수필 「향기」(2022)에서도, 지역별 봉쇄기간 악성전염병으로 고충을 겪었던 잊을 수 없는 나날을 다음과 같이 진솔하게 회상하고 있다: “봉쇄와 격리가 시작된 그날부터 나는 고열로 앓아누웠다. 집에 있는 약은 불과 몇 알뿐. 나의 머리 속에는 지금까지 TV로 보아오던 세계의 악성전염병 피해상황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며 저도 모르게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다.”²³ 상황이 이런데도 인민대중은 방역 마스크와 진단키트조차 알지 못한 채 전염병 감염 위험으로부터 무방비한 상황과 해열제 같은 가정상비약조차 구하지 못한 현실에 무기력해 한다.

사회주의적 보건 의료시스템과 주체의학의 구조적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평소 감염 예방에 소홀했거나 약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개인문제로 자책할 뿐이다. 가령 최경복의 단편, 「한 가정」(2022.10)을 보면, 주인공은 해열제를 찾아 밤새 약국을 찾아다녔지만 약을 구할 수 없어 “다 내 탓이야”라며 절망한다.²⁴ 그가 인민반장의 도움으로 약을 구하고 군의가 방문하자 지도자의 헌신과 희생에 마냥 감격해 한다. 이런 서사를 통해 못난 백성과 현군의 대립구도를 통한 중세적 애민, 위민이념이 빛바랜 감동과 찬사를 강요한다.

하지만 『조선문학』, 『문학신문』 같은 작가동맹 정맹원의 발표지면보다 격이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검열시스템이 느슨해서인지 『청년문학』에 실린 박정혁 수

²¹ 황수환·권재범,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국제사회의 대북협력』(서울: 통일연구원, 2022) 참조.

²² 윤학명, 「9월의 밤」(수필), 『청년문학』, 2022.9, pp. 25~26.

²³ 오혜심, 「향기」(수필), 『조선문학』, 2022.9, pp. 63~64.

²⁴ 최경복, 「한 가정」(단편소설), 『문학신문』, 2022.10.22., p. 3.

필 「친혈육」(2022.8)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훼손과 인민생활의 숨겨진 진실을 비교적 실감나게 서술한다. 함흥시 흥남구역 덕동 15인민반에 주소지를 둔 작가동맹 후보맹원인 필자는 전 세계를 휩쓰는 악성전염병이 경내에 들어와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한 2022년 5월, ‘진국 이래 대동란’ 시기에 집을 떠나 먼곳에 있었다. 그런데 몸이 아파도 집에 갈 수 없었다. 전국적인 봉쇄조치로 하여 집으로 돌아갈 길까지 막혀버린 그는 할 수 없이 낫선 타향 여관에 머무르게 되었다. 몸에서 벌써 병증이 나타났는데도 아픔보다도 집을 떠난 근심이 더 컸다. 변변한 약도 없이 앓고 있는데 고맙게도 여관 손님이 약을 나눠줘서 살았다는 미담이다.²⁵

나는 열이 내렸다면 약을 먹지 않았다. 내 이마를 짚어보던 그는 아직 열이 있는데 왜 약을 먹지 않는가고 하였다. 나는 아직까지 참을 수 있으니 일없다고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약을 남기고 봐야 한다거니, 그는 빨리 약을 써야 낫는다거니 하면서 우린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었다.

이때 려관을 돌아보던 군당위원회 일군이 우리에게로 왔다. 자초지종 사연을 듣게 된 그는 걱정하지 말라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주신 약품이 우리 군에도 도착하였으니 빨리 약을 쓰자면서 의사를 데려오는 것이었다. 이윽하여 몸상태를 진찰한 의사는 그 자리에서 치료대책을 세웠다. 방울방울 온몸에 약이 흘러들었다. 아픔도 점차 숙여들기 시작하였다. 나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겠는지 모르겠다고 목메이는 말을 더듬기만 하였다.

수필 뒷부분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집 떠나 외지에서 고생하는 나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의사까지 보내주시었다 말인가.”하며 감격해 한다. 지도자가 보낸 약과 군당위에서 보낸 의사의 링겔 덕분에 완쾌되어 지도자와 당 사회주의제도에 감사하다는 결구로 되어 있다.

그런데 문학의 본질이 인간과 세상사를 총체적으로 그려내기에 가치가 더욱 빛난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다. 글을 쓴 수필가의 충성스런 의도와는 상관없이 시대의 진실을 무의식적으로 증언하는 숨겨진 기능이다. 굳이 리얼리즘의 승리라는 문구를 떠올릴 필요도 없이, 글을 보면 지역 봉쇄와 주민 이동 금지조치가 최소한의 의료대책과 생필품 제공, 가족간 연락 등의 보장이 결여된 채 기계적으로 강제된 극한상황을 보여준다. 누군가 여행 중 코로나19로 병이 났을 때 적절한 대책이 별반 없던 반증일 수도 있다. 타인인 여관 투숙객의 감염을 무릅쓴 헌신적 돌봄이

²⁵ 박정혁, 「친혈육」(수필), 『청년문학』, 2022.8, pp. 27~28.

없었다면 필자가 완쾌될 수 있었을까? 기실 인용문 중 은폐된 핵심은 환자에게 절박한 약을 애써 거절하면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약을 남기고 봐야 한다”는 대목이다. 자력갱생 방역대전 승리 신화의 이면에 숨겨진, 보건 의료 방역시스템의 붕괴라는 은폐된 진실 말이다.

비슷한 독해법으로 김정은의 위민정책을 찬양한 최근 도서의 코로나19 관련 대목을 읽어보자.

“국가비상방역사령부 일군들은 자신들의 무경각과 해이, 무책임으로 하여 2년 3개월이나 굳건히 지켜오던 비상방역전선에 파공이 생기고 끝내 악성비루스가 이 땅에 류입된 것으로 하여 머리를 들 수 없었다.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감염자가 급증하는 눈앞의 현실은 나라의 운명이 이대로 결판나는가 하는 최악의 경우까지도 내다보아야만 하는 매우 다급한 국가 최대의 위기사태였다. 처음 겪는 위기사태 앞에서 일군들은 누구라 할것없이 다 병어리가 되었다. 엄청난 재난을 과연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겠는지 당혹감을 금할 수 없었다.”²⁶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2년 3개월 동안 확진(의심)자가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수십만 명이 발병할 수는 없다. 상당 기간동안 확진(의심)자에 대한 진단-확인-통계-발표과정이 은폐되었을 것이다. 2021년 자료에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반성과 참상이 2022년 5월 이후의 문건에 와서는 그리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역시 김정은 시대 10년의 치적을 찬양 일색으로 정리한 장시 「승리의 10년」를 읽어보자.

벽차계도 흘러왔구나 / 힘차계도 달려왔구나 / 어버이장군님 유훈을 안고 / 원수님 받들어 즐기치게 달려온 / 내 조국의 10년 승리의 10년이여!
 (중략) 온 세계를 휩쓴 악성전염병으로 / 수많은 사람들 혈육을 잃고 / 한숨과 절망, 비애에 울 때 / 그이의 사랑으로 덕과 정을 나누며 / 세상이 보란듯이 사회주의화원을 꽃피웠다
 (중략) 돌이켜보면 시련은 많았어도 / 그이 따라온 길은 승리의 길 / 제국주의와의 총포성 없는 전쟁에서도 / 횡포한 자연과의 전쟁에서도 / 오직 승리만을 력사에 아로새겼다 (후략)²⁷

²⁶ 립이철, “인민의 생명안전수호를 최중대사로,” 『위민헌신으로 빛나는 성스러운 려정』 (평양: 평양출판사, 2023), p. 57.

²⁷ 백광명, “승리의 10년,” 『사랑의 무게』(작품집) (평양: 평양출판사, 2022).

이 역시 김정은 시대 10년의 치적을 김정일의 선행 업적을 계승하고 3대 세습한 사회주의체제 유지에 성공했다고 승리를 자랑하고 있다. “제국주의와의 총포성 없는 전쟁에서도 / 횡포한 자연과의 전쟁에서도 / 오직 승리만” 했다고 자부한다. 여기서 ‘횡포한 자연과의 전쟁’이 바로 코로나19의 참상과 ‘방역대전’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것도 고비용 최첨단 의료약과 장비가 아니라 지도자의 사랑과 인민의 덕, 정 같은 사회주의적 품성으로 시련을 극복했다고 자찬한다.

감상자에 따라선 원래부터 위대했던 지도자가 이번에도 위대함을 발휘해서 미리 예정된 승리를 당연히 했다는 정답 찾기보다, “악성전염병으로 / 수많은 사람들 혈육을 잃고 / 한숨과 절망, 비애에” 빠진 그 정황 자체가 깊이 각인되기도 한다. 대중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평소 보건위생규율을 철저히 지키지 못하는 등 내가 뭔가 잘못해서 염병에 걸려 당과 지도자, 이웃에게 폐를 끼쳐 황송했는데, 알고 보니 이번 질병의 전염력이 워낙 악성이라 손쓸 새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죽어서 한숨과 절망, 비애에 운 것은 당연했구나 하고 안도할 수 있다.

당과 국가, 사회의 공식 언술은 위대한 지도자 덕분에 악성전염병을 미리 막거나 병에 걸려도 나라가 다 치료해주고 일상생활 영위도 보장해주시 방역 승리를 찬양할 만하다. 그러나 은폐된 현실은 코로나19 진단키트는커녕, 방역마스크나 해열제 정도의 치료약도 부족하고 첨단진료시스템 같은 현대의학과 의료가 기는커녕 일상적인 의료진도 부족해서 군대 의사들까지 민간영역에 긴급 투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3. ‘최대비상방역체계’를 통한 ‘방역대전’ 시기 북한문학

셋째, 2022년 5월 12일 이후 코로나 발병 공식화와 ‘방역대전’ 승리를 공표(22.8.10.)한 이후 코로나19를 재현한 문학작품이 쏟아져 나왔다. 북한당국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2022.5.12.)에서 발병 사실을 공식화²⁸한 이후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유열자(발열자, 확진의심자)’가 나오자, ‘최대비상방역체계’를 통해 봉쇄 조치를 최강도로 유지하였다.²⁹ 이 회의에서는 국가방역사업

²⁸ 제8차 당대회(2021.1.8.)와 조선혁명군 창군 90주년 기념 행사(2022.4.25.) 당시도 코로나19 발생자가 없다고 공표하였지만 2022년 5월 12일 당 정치국회의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발생을 공식화하였다. 본사정치정보도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 진행,” 『로동신문』, 2022.5.12., p. 1.

²⁹ 위와 같은 곳;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 진행,” 『로동신문』, 2022.5.14., p. 1.

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할 결정서가 채택되었다. 최대비상방역체계의 기본 목적은 신형코로나비루스의 전파를 억제하며 감염자들을 빨리 치유시켜 최단기간 내에 없애자는 것이다. 김정은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악성비루스보다 더 위험한 적은 비과학적인 공포와 신념 부족, 의지박약”이라고 하면서 당과 정부, 인민이 일치단결된 조직력과 정치의식, 자각이 있기 때문에 비상방역사업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언하였다. 방역의 구체적 세부지침으로 전국 시군의 지역별 봉쇄, 사업단위, 생산단위, 생활단위별 격폐, 비루스 전파공간 완벽 차단, 과학적 집중 검사, 치료 전투, 비축 의료품 예비동원 등을 지시하였다.³⁰

북한이 늘 그렇듯, 이 전대미문의 위기를 김정은이 진두지휘해 불과 80여 일 만에 악성비루스감염증에 맞선 방역대전에서 승리했다고 자화자찬하였다. 가령 강도 높은 봉쇄 중에 김정은은 평양시내 약국을 야간시찰한 후 모자란 약을 보충하기 위해 솔선수범으로 가정상비약을 내놓고 태부족한 의료진을 급히 보완하기 위해 군의(軍醫)까지 동원하였다. 최고 지도자의 헌신과 희생으로 ‘건국 이래 대동란’을 80여 일 만에 자력갱생으로 극복했다고 공표한 것이다. 즉, 2022년 8월 10일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통해 ‘최대’ 비상방역체계를 ‘정상’ 방역체계로 낮추면서 코로나19 방역 성공을 선언하였다.³¹ 이런 정세 하에서 박현철 시, 「드리노라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2022.8) 같은 시가 나왔다.

(전략) 최대비상방역전의 그 하루하루 / 1년, 10년 맞잡이로 / 자신을 깡그리 다 바치신 분 / 인민은 앓아도 복속에 앓고 / 령도자는 그 인민을 살붙이처럼 돌보시느라 / 상상 못할 심혈을 쏟으신 미증유의 려정이어
(중략) 악성전염병과의 싸움에서 / 세계방역사상 최장의 신기록을 아로새긴 / 무혈, 무사의 2년 3개월 / 덮쳐든 병마를 80여 일 만에 완전히 털어버린 / 세계보건사가 알지 못하는 이 기적은 / 위대한 인민사랑의 령도가 안아온 승리! 대승리! (후략)³²

김정은의 2022년 5월 12일 발언, “악성비루스보다 더 위험한 적은 비과학적인 공포와 신념 부족, 의지박약”이란 언급을 뒤집어 보면, 진단키트, 치료약, 첨단진

³⁰ 본사정치보도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의 진행”

³¹ “방역전쟁에서의 승리를 공고히 하여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더욱 믿음직하게 담보하자 -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연설: 주체111(2022)년 8월 10일.” 『로동신문』, 2022.8.10., pp. 2~4.

³² 박현철, 「드리노라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시), 『문학신문』, 2022.8.20., p. 1.

료시스템 같은 현대의학기술과 의료기기, 의료진 등 물적 기반이 절대 취약한 북한사회로선 개인위생과 가정 내 자가치료, 정신승리밖에 대책이 없었던 저간의 사정을 고스란히 드러낸 셈이다. 그 엄혹한 현실을, “세계를 공포와 전염에 몰아넣은 / 그 악마의 전염병, 죽음의 악성병마”(「드리노라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같은 시구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가 과거 발생한 팬데믹 대응과 차원이 달랐다는 점이다.³³ 변영진 소설 「사랑은 뜨겁다」(2016.5)에서 큰소리쳤듯이 세계적인 의료수준을 과시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유행 때처럼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바라지도 않았다. 팬데믹으로 국가적 대응란을 겪고 위기에 빠졌지만 자력갱생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였다. 특히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전 인민적으로 전개된 코로나19 ‘방역대전’의 문학적 재현은 당시 주민생활상을 속 깊이 엿볼 수 있기에 주목할 만하다.

방역대전 승리를 구가하는 문학 텍스트의 이면에는 주민들이 겪었던/겪고 있는 전염병의 고통과 의료시스템 절대부족 현실이 숨겨진듯 반영되었다. 가령 코로나 19 시기 대표작으로 북에서 손꼽는 김남호의 장시 「고요한 거리에서」(2022.6)를 보면, 국경 폐쇄, 도시 봉쇄, 주민 이동 금지로 인한 일상 파괴를 ‘대동란, 고요, 정적’ 등의 상징어로 형상하였다.³⁴

아직도 잠들었는가 고요한 거리여 (중략)
 아직도 잠들었는가 인적 없는 거리여 (중략)
 순간도 고요란 몰랐던 전진의 거리 약동의 거리여(중략)
 어이하여 이 아침 묵묵히 서서 한적한 고요의 바다에
 바다없는 정적만 숨막힐듯 쏟고 있느냐³⁵

³³ “북한은 2000년 이후 발생한 사스(2003년), 신종인플루엔자(2009년), 에볼라(2014년), 메르스(2015년) 등의 초국적 전염병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수용했던 사례가 존재한다. 과거 전염병 사례를 보면 국경 통제 강화 등 전염병 유입 차단에 주력하는 가운데 북한 내 발병 여부에 민감 대응하면서도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황수환·권재범,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국제사회의 대북협력』 참조.

³⁴ “「고요한 거리에서」는 돌발적인 최악의 방역위기로 지역별, 단위별 봉쇄조치가 취해진 비상방역체계 하에서 인민 사수의 최전방에 서있는 당 중앙의 현명한 정도를 따라 우리 인민이 진행한 방역전쟁과정을 감동 깊게 시화한 성과작이다.” 신정수, “역센 의지와 완강한 분발력으로 주체 문학예술 발전의 새로운 개화기를 펼쳐나가자,” 『조선문학』, 2022.9, pp. 3~6.

³⁵ 김남호, 「고요한 거리에서」(장시), 『문학신문』, 2022.6.11., p. 1.

여기서 ‘고요, 정적’이란 ‘건국 이래 대동란’인 ‘악성전염병사태’에 대응하는 전면적 이동 금지와 봉쇄정책의 문학적 표현이다. 하지만 이 장시가 북한 당국에서 팬데믹 시기의 성과작으로 꼽히는 이유는 사회주의적 일상의 훼손과 참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은 아니다. 1장의 고요와 정적으로 상징되는 참상을 딛고, 2장에서 “죽음을 물고 덮쳐드는 / 악성병마와의 피어린 대전이 이 땅에 일었거니 (중략)/ 온 거리는 그대로 / 생사를 판가리하는 결전의 성새! / 들리지 않느냐”면서,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을 강렬하게 외치기 때문이다.

「고요한 거리에서」를 보면 봉쇄정책과 최대 수준의 비상 방역과정을 전쟁에 비유하고 있다. 가령 2장에서 통제용 바리케이드를 두고 “빛장처럼 드리운 거리와 거리, 집과 집들이 통채로 참호와 전선으로 화한 전쟁”으로 비유한다. 특히 4장에 그려진 ‘전민항쟁’의 방역대전은 드라마나 영화몽타주처럼 스펙터클하기까지 하다.

무서운 고열의 극한/ 자리에 누운 식솔들 한가슴에 불안고/ 머느리 홀로 마음 태우던 집에/ 어떻게 밝은 웃음 다시 피어났던가/ 집안에 앓는 오누이를 낚은 채/ 마지막 약을 갈라들고 이웃으로 달려간/ 그 위생반장은 누구였던가//
 자식 셋을 군대에 보낸 / 후방가족 어머니에게 / 자기집의 털어낸 식량을 쏟아주며/
 어서 병을 털고 잔치를 크게 차려보자 / 마음을 울리던 그 인민반장은 누구였던가//
 온밤 곁에서 정성을 고일 땀 / 혈육의 따뜻한 웃음을 주고/ 씻은듯 자리 털고 일어난
 그 아침엔 / 오히려 환희에 눈물짓던 너의사//
 불러도 빈 집마냥 대답 없는 집에서 / 딸인듯 손녀인듯 지켜앉아/ 미음 쑤어 떠넣어
 준 이름 모를 그 처녀 대학생...//

코로나19를 치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사회주의의 붉은 보건 전사가 맹활약했던 것이 2020년 1단계 문학작품 속의 보건 영웅이었다면, 2022년 3단계에 오면 그들 전문가만큼이나 일반인들까지도 보건 의료 방역 전선에 뛰어든다. 4장의 서사적 캐릭터들인 위생반장, 인민반장, 여의사, 처녀 대학생 등이 바로 전민항쟁기의 방역 영웅인 셈이다. 이런 이유로 이 장시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악성전염병과의 총력투쟁을 벌이는 인민대중의 모습을 진실하게 형상하여 독자 대중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높이 평가받았다.³⁶

또한 3장에서 김정은의 지도와 헌신으로 방역 성공을 기원한 결과, 7장 결구에

³⁶ 차수(본사 기자), “전 인민적 진군에 활력을 더해주는 명작들을 내놓아야 한다,” 『로동신문』, 2022.6.13., p. 6.

서, “이제 무엇이 두려우랴/ 그 어떤 역풍이 몰아쳐 와도/ 우리의 거리가 고요하든
 고요치 않든/ 원수님 따르는 오직 한길에/ 승리는 언제나 우리의 것!”이라고 방역
 성공을 선취한다. “악성비루스보다 더 위험한 적은 비과학적인 공포와 신념 부족,
 의지박약”이기에 시인이 이를 전해 들고 방역 성공을 전쟁 승리처럼 기약, 다짐하
 기 때문에 코로나19 시대 주체문학의 성과작으로 평가³⁷ 받았다.

「고요한 거리에서」는 코로나19 발병을 공식화한 2022년 5월 말, 최대비상방
 역체계 공포 시점의 대표작이라면, ‘전민항전, 방역대전’에서 승리를 공식화한
 2022년 8월이 되자 방역 성공의 전승(戰勝) 찬가가 쏟아져 나왔다. 박현철 시, 「드
 리노라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도 방역 성공으로 일상을 회복했다는 데 찬양
 의 초점을 맞춘 작품이다.

마침내 밝아왔구나 / 죽음의 악성병마를 말끔히 걷어내치고 / 빛나는 승리를 선포한
 / 내 나라의 맑은 아침이//
 2년 수개월 얼굴을 가리웠던 마스크를 벗고 / 사람들은 활기차게 출근길에 오른다
 / 어른들은 정다운 일터로 / 아이들은 학교와 탁아소와 유치원으로...//
 너무도 레사롭구나 / 레사로운 그만큼 눈물겹구나 / 아무 일도 없었던듯 / 평온하고
 행복한 저 모습들//
 (중략) 평범한 인민들에게 차례지던 / 한알한알의 그 약들을 / 번쩍이는 금덩이에
 어이 비기랴 / 그것은 이 행성에서 / 천금 주고도 살 수 없는 정의 응결체//
 가슴마다 파고들던 뜨거운 그 정이 / 또 하루밤 지나면 피줄을 타고 / 심장마다 흘러
 들던 불같은 그 사랑이 / 쓰러졌던 우리를 일으켜세웠거니//
 (중략) 누가 믿으랴 바로 저들이 / 준엄한 방역전쟁을 겪은 사람들이라고 / 누가 믿으
 라 아름다운 이 거리와 마을들이 / 세계를 공포와 전률에 몰아넣은 / 그 악마의 전염
 병이 누벼간 곳이라고//
 오히려 수도 평양엔 / 또 하나의 새 거리가 자태를 드러낸다 / 저 멀리 량포에는 새
 온실이 덩실 키를 솟군다 / 전야에는 벌써 푸르른 포기들이 / 알찬 이삭들을 영글린
 다.(후략)³⁸

박현철 시에서도 코로나가 쓸고 간 고요와 정적의 거리를 두고 「고요한 거리에
 서」처럼, “세계를 공포와 전률에 몰아넣은 / 그 악마의 전염병이 누벼간 곳이라고”

³⁷ 신정수, “역센 의지와 완강한 분발력으로 주체문학예술 발전의 새로운 개화기를 펼쳐나가자”

³⁸ 박현철, 「드리노라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노래한다. 하지만 방역에 성공하여 고요와 정적에서 벗어나 활기를 되찾은 거리 풍경을 두고, “죽음의 악성병마를 말끔히 걷어내치고 / 빛나는 승리를 선포한 / 내 나라의 맑은 아침이”라고 찬양한다. 무엇보다도 전쟁에 버금갈 만큼 염병으로 훼손되고 철저하게 파괴되었던 일상의 회복에 주목한다. 주민 간 이동이 억제되고 생필품과 상비약까지 모자라 전쟁 가까운 대동란을 치렀던 일상생활이 빠르게 복원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감격해 한다. “너무도 레사롭구나 / 레사로운 그만큼 눈물 겹구나 / 아무 일도 없었던듯 / 평온하고 행복한 저 모습들”이라는 시구에서, 체제 특유의 대단한 치적이거나 영웅적 성취보다 소박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은 데서 행복을 느낀다는 이면적 진실을 읽어낼 수 있다. 일상 찬가, 이는 영웅 찬가가 지배적이었던 부조 시대 문학과는 차별화된 김정은 시대 문학만의 새로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 문학의 코로나19 재현 대부분은 일상 파괴와 인민의 희생을 후경화하고 방역 성공의 공을 오로지 지도자의 헌신 덕으로 전경화한다. 가령 김해연 시 「머리맡」(2022.8)을 보면, 지도자는 “악성비루스의 보이지 않는 병마가 시시각각 떠도는 위험한 곳에” 감염 위험을 감수하고 병문안을 직접 간다. 그리고 시적 화자에게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가” “다정히 물으셨다.” 코로나19 확진(의심)자 집까지 직접 방문해서 환자에게 세부사항을 묻기까지 한다.

약값은 얼마인가 / 어떤 치료가 제일 적합하다 생각되는가 / 열이 나는 주민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해설하겠는가 / 실지로 자신께 설명해보라고 //
온 나라가 전염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니 / 힘들어도 맥을 놓지 말자고 / 인민을 위해 정성을 다하자고 /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신 그때는 / 내 단잠 든 깊은 밤//³⁹

지도자가 전염병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만나 직접 치료를 위한 세부까지 묻고 정책 시행에 반영하겠다는 저 중세 군주식 만기친람(萬機親覽)은 당-국가 지도자를 어버이로 떠받드는 북한체제에서 애민-위민 통치의 상징적 그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 시적 화자인 병자는 “몸은 아파도 마음은 아프지 않았네 / 어버이의 다심하신 그 사랑이 / 나를 지켜 한밤을 지새우시니 / 가슴엔 행복의 눈물이 흘렀네”라고 감격해하게 된다.

2022년 8~10월 문예지에는 위와 같은 지도자의 헌신적 영도로 방역에 성공하

³⁹ 김해연, 「머리맡」(시), 『청년문학』, 2022.8, p. 40.

여 감격, 고마워하는 인민의 찬가가 넘쳐난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도움이 전혀 없이 자력갱생만으로 초유의 팬데믹과의 ‘방역대전’에서 승리했다는 폐쇄국가체제의 사회적 신화를 문학작품으로 치장한 것은 공허한 정신승리의 노래가 아닐까? ‘대동란’으로 표상되는 팬데믹의 참담한 현실에 맞닥뜨려, 기본적인 사회보장시설과 보건위생 장비 및 첨단의료시스템 등 물적으로는 도저히 해결하기 힘든 난관 속에서 문학이 정신승리만 강조한 것이리라 풀이된다. 지도자의 헌신과 인민대중의 자발적 동원(이 경우 개인과 일상의 훼손을 감내하는 전면 봉쇄책에 대한 아무런 불만 없는 무조건적 동참)만 상투적으로 반복하는 선전선동을 통한 정신적 위로라도 필요할 만큼 고통스런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지.

IV. 마무리 : ‘방역대전’ 승리 신화와 은폐된 진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23) 북한문학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어떻게 그렸는지 다각도로 고찰하였다. 이 시기 북한 문예지 콘텐츠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김정은 시대 3기 전후(2019-2023) 문학 동향과 쟁점,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문학적 재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2020년 이후 최근 3년간의 북한문학을 보면 코로나19 팬데믹의 재난을 피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전 인류적 위기인 코로나19 팬데믹(2020-22년)으로 한반도 평화시대 구축 노력(2017-19)이 불가항력적으로 중단되고,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개혁개방정책이 좌초된 북한 당국은 이전보다 더욱 폐쇄적인 자력갱생 강경노선으로 회귀하였다. 북한 주민들의 삶도 전면봉쇄형 방역시스템 강화로 일상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사회 변화와 맞물려 문예 창작의 위축과 공백도 예상할 수 있다.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지역 봉쇄와 주민 이동 금지가 시행되면서 작가들은 창작사로 출퇴근할 수 없고 합평회와 창작총화도 불가능했을 것이며, 몇 단계에 걸친 검열시스템도 중단되었을 것이다. 코로나 자체가 문예 창작의 전면적인 위축과 공백을 초래하기도 했을 터이다.

이 글의 본문에서 『조선문학』, 『문학신문』 수록 문학작품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현 양상을 시기순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2020년 코로나 초기 단계, 둘

째, 2021년 코로나 은폐 단계, 셋째, 2022년 5월 12일 이후 코로나 발병 공식화와 ‘방역대전’ 승리 선언(2022.8.10.) 단계.

2020년 코로나19 초기 단계의 북한문학에서는 병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사회주의적 보건 위생과 주체의학체계의 우수성을 반복하였다. 2021년 코로나로 인한 전면 봉쇄기에는, 일상생활의 심각한 훼손이 추정되지만 문학적 형상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문예지로선 이례적으로 방역을 강조하는 비문학 캠페인 기사가 많아졌다. 2022년 5월 12일의 당 정치국회의에서 발병 사실이 공식화된 후 그간의 참혹한 현실이 뒤늦게 폭로되었는데, 코로나19 청정국이란 허구 속에 은폐되었던 ‘건국 이래 대동란’의 참상이 봇물 터지듯 드러났다.

3단계인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전 인민적으로 전개된 코로나19 ‘방역대전’의 문학적 재현은 특기할 만하다. 가령 장시 「고요한 거리에서」(2022.6)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 도시 봉쇄, 이동 금지로 인한 일상 파괴를 ‘대동란, 고요’로 형상화하였다. 「드리노라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2022.8)을 비롯한 수많은 작품에서 코로나19에 맞선 방역과정을 ‘최대비상방역체계’를 통한 ‘방역대전’으로 묘사하고 최고지도자의 헌신과 의료진의 ‘정성’이란 상징어로 ‘불과 80여 일만’에 승리했음을 자축하였다.

끝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23) 북한문학이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어떻게 그렸는지 시간순으로 통시 분석한 중간결론에, 공식적 미시 분석을 덧붙여 본다. 수십 편의 텍스트를 개괄해보면 전염병의 참상은 구체적 감각적 이미지로 묘사된 것이 대부분인 반면 방역 승리 찬가는 추상적 문구와 관념적 문장으로 획일화된 것이 많았다. 이는 북한문학 특유의 ‘수령 형상 문학’의 규범화된 서사(스토리텔링)인 최고지도자의 만기친람(萬機親覽)식 영도에 의한 고난 극복과 승리 공식이 상투적으로 반복된 클리셰에 불과하다.

다른 한편, 시가와 산문의 장르적 차이도 주목할 만하다. 당 정책의 즉시적 반영과 기동력 있는 재현이 가능한 시 장르에선 코로나의 일상 훼손과 방역 성공 찬가가 주를 이룬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훼손과 파괴 정황은 전면 봉쇄된 거리로 형상된 ‘고요’라는 단어가, 방역대전에서 승리한 의료진의 헌신은 ‘정성’이란 붉은 완장 마크가 상징한다. 반면 소설, 희곡, 서사시 등 서사장르에선 아직 코로나19 팬데믹의 서사시적 재현성고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한 가정」(2022.10), 「친혈육」(2022.8) 등 일부 수필과 단편에서 은폐된 이면적 진실이라 할 전염병의 참상과 일상 훼손이 사실적 구체적으로 파편화되어 묘사되었을 뿐이다.

물론 북한문학은 사회주의 당문학이자 수령론이 작동하는 주체문학이기에 당 정책을 반영하고 수령 형상을 찬양하는 기존 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2022년 5월 중순 이후 2023년 초까지 나온 코로나19 ‘방역대전’의 문학적 재현 텍스트는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 결정서’의 선전물 일변도라고 폄하할 수 있을 정도이다. 코로나19를 그린 작품 대부분이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을 자력갱생으로 막았다면서 지도자의 위대함과 사회주의-주체체제의 우월성을 재삼 확인했다는 상투적 선전에 그쳤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세계적 유행병을 막아냈다는 일종의 사회적 신화의 문학적 형상이라 그리 큰 감동을 주지는 못한다. 팬데믹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총체적 실상을 비판적 산문정신과 내재적 성찰로 형상한 소설, 서사시 등 본격 리얼리즘 작품을 찾아보기 어려워, 코로나19를 그린 북한문학이 폐쇄국가의 대외용 자화자찬에 머문 것으로 추정된다. 전례 없는 대동란인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선 북한의 방역을 동시기 문학작품에 한정해서 평가한다면, ‘과학방역 대 정치방역’의 대립을 넘어선 일종의 감성방역, 이념방역으로 규정할 수 있을 터이다. 정신승리의 노래는 선전선동을 통한 정신적 위로가 필요한 참담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닌지 모를 일이다.

■ 제출: 5월 4일 ■ 심사: 5월 26일 ■ 채택: 5월 30일

참고문헌

1. 단행본

황수환·권재범.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국제사회의 대북협력』 서울: 통일연구원, 2022.

2. 논문

김성수. “북한문학의 방역 재현 전통과 팬데믹.” 『국제한인문학연구』, 통권35호, 2023.

3. 기타 자료

『로동신문』.

『문학신문』.

『문학예술』.

『조선문학』.

『천리마』.

이지순. 2022. “북한 문학의 팬데믹 재현: 재난 리더십과 코로나19 경험.”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CO 23-12, 23.3.28.

Covid-19 pandemic reflected in North Korean literature

Kim, Seong-Su

This article examines how North Korean literature reflected Covid19 through an analysis of the contents of North Korean literary magazines during the pandemic (2020-23). North Korean literature over the past three years shows that North Koreans have not been able to avoid the disaster of the Covid-19 pandemic, and their daily lives have also been seriously damaged by the strengthening of urban blockade-type quarantine. Literary works reflecting Covid19 show that the horrors of the epidemic are described as concrete sensory images, while the praise of quarantine success has many abstract phrases and ideological sentences. Literary works such as the long lyric *On a Silent Street* (2022.6), which praised the success of quarantine, embody the daily destruction caused by the closure of borders, urban blockade, and the policy of banning residents' movement, as "Great Turbulence, Silence." Literary works celebrate the success of quarantine in three months (2022.5-8) under the symbol of Supreme Leader's dedication and medical staff's sincerity during the "quarantine war."

The literary policy after the 8th Korea Labor Party Congress (2021.1) placed the duty of literature in the propaganda of a five-year plan to improve the people's economy and the praise of the victory of the "quarantine war" in response to the Covid 19 pandemic. Like the wartime system, the tragedy of Covid 19 and praise for the success of quarantine are mainstream through the poetry genre that can immediately deliver the party's quarantine policy to prevent the pandemic and reflect it with mobility. On the other hand, it is difficult to find text that realistically describes the horrors of residents' lives caused by the pandemic, such as novels that depict critical prose spirit and intrinsic reflection. Most of the works, such as a poem *I give you my best tribute for your hard work* (2022.8), do not give much impression as they remain in the propaganda of the system and the praise of the leader that they succeeded in quarantine through self-reliance.

Key Words: North Korean Literature, Covid-19, Pandemic, the Kim Jong-un Era, quarantine war, *On a Silent Street*, *I give you my best tribute for your hard work*